

지난해 말 프로젝트 관계로 경기도 양평을 다녀오며 이따금씩 갈등을 느껴오던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존의 환경위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건축가의 작업이 과연 근본적으로 창조적이나 아니면 파괴적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몇 차례 다녀왔던 한적한 전원풍경의 그곳 일대는 준농림지역내 전원주택 건설붐을 타고 이곳저곳 산자락이 파헤쳐진 채 토목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건설중인 대부분의 전원주택의 모습 또한 '시인의 마을'이라는 식의 낭만적 단지이름에 걸맞게 미국식 목조 주문형 주택이 들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필자 또한 준농림지역내 전원주택을 계획할 현장을 다녀오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진정 남의 일이 아니었다.

건축 창조성의 양면성

Both Faces of Architecture

심영섭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by Shim Young-Sub

창조적 전문직으로서 자임하는 건축가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재편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지만 그의 역할과 책임이 이윤추구를 최대목표로 하는 개발업자의 그것과 다른 것은 '어떻게?'라는 건축가로서의 고유한 해결 방식에 달려있다. 이 '어떻게?'라는 고민이 결여될 경우 건축가는 개발업자와 결코 다른 것이 없으며 창조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상황을 방치하느니만 못하는 적극적 파괴자로서 남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풍부해진 산림자원에 힘입어 한동안 우리 건축계에서 외면받아온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거나,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서 아직은 여러가지로 불편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하고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벗삼을 수 있는 개성있는 주거단지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분명 콘크리트와 고층아파트, 다세대 주택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주거문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변화의 모습은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다. 새마을 운동의 열풍속에 우리의 농촌모습을 바꿔놓았던 개량농촌주택의 원색 슬레이트 지붕이 휘젓던 어지러움증이 시간의 미덕으로 점차 누그러질 즈음 이제는 합판에서 단열재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들어온 미제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사실 이와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 전조는 이미 여러곳에서 보여왔다. 소비문화와 레저문화의 부추김, 승용차의 대중적 확산과 갈비집과 카페, 러브호텔이 각양각색으로 들어서 있다. 또한 비교적 오랫동안 청정한 모습을 지켜온 불교사찰들도 세속적 물결에서 온전할 수 없었다. 설악산 백담사앞 계곡을 영성하게 가로지르던 외나무다리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신작로 같은 화강암 아치교로 모습이 바뀌었고, 고풍스럽고 한적하기까지 했던 수덕사의 목조건물은 마치 홍콩 무술영화의 세트장을 연상시키는 아찔한 돌계단과 대형연못, 콘크리트 전각뒤로 몸을 숨긴 채 바삐 움직이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농촌과 전원의 풍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를 탓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가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계에 몸담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스러우며, 나의 작업 또한 이에 일조를 하고있지는 않은가 돌이켜 보게 된다. 과연 건축은 내재적 속성상 자본의 논리와 소비문화에 종속될 수 밖에 없으며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타고난 것인가?

사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은 인간문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 왔으며 인간문명의 역사 자체가 그 갈등 가운데 개선책을 찾아온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의 각 지역마다 그곳의 고유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고유한 건축문화를 형성해 왔고 세월이 흐르며 성장과 쇠퇴가 반복되는 자연계의 순환처럼 인간문명과 모든 건조물 또한 성장과 쇠퇴속에 변화를 계속해 왔다. 심지어 이제는 전설속으로 사라진 잉카제국의 경우처럼 한때의 찬란한 문명도 주변환경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했거나 변화를 거부했을 경우 존재 자체의 멸망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도로 산업화된 요즘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매우 급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연이나 환경이 이와같은 변화에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조절여력은 예전보다 훨씬 미약하게 마련이고 한번 잘못된 시행착오는 좀처럼 짧은 시간내에 회복하고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된다.

세계 각국 건설회사의 경연장처럼 여겨졌던 70년대의 중동건설붐 이후 급조된 그곳의 건축환경은 오늘날 현대적인 개발의 무국적성과 비문화성을 일깨우는 실례로 남아 있다. 또한 중동 건설경기에 힘입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히 변화한 우리의 환경 역시 크고작은 몸살을 앓아왔으며, 요즘에도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개발사업에 따른 장소성과 경관의 훼손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우리가 과거 궁핍할 당시 인구증가 억제책으로써 펼친 산악제한 정책에 알게 모르게 대중적 측면에 걸려온 결과, 2천년대에는 평균연령의 노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예상되듯이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정책속에 뿌리내린 '하면된다'는 식의 저돌적, 파괴적 개발양상에 건축가들을 비롯한 우리모두가 그동안 유사한 최면상태에 빠져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존환경의 개발은 피할 수 없고 개발자체가 최악시 될 수도 없었다. 또한 우리의 인공환경을 조성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는 건축가의 역할과 위상이 이로 인하여 평가절하 될 수도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문명이 시작된 이래 우리의 주거환경을 꾸미는 일을 담당했던 이들은 현재와 같은 전문인으로서의 자격시험과 건축가의 호칭은 없었을지 언정 초월적인 자연이나 산과 연약한 인간을 중재하는 성직자와 같은 중간자적 위치로까지 받아들여지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도 전문직으로서 건축가의 호칭앞에 스스로를 '창조적'이라는 고귀한 단어를 부칠 수 있는 까닭은 흔히 생각하듯 형태나 독창성의 문제에서 기인하기보다는 환경을 바탕으로 한 이와같은 건축가의 고

유한 역할때문이라 생각된다.

창조적 전문직으로서 자임하는 건축가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재편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지만 그의 역할과 책임이 이윤추구를 최대목표로 하는 개발업자의 그것과 다른 것은 '어떻게?' 라는 건축가로서의 고유한 해결방식에 달려있다. 이 '어떻게?' 라는 고민이 결여될 경우 건축가는 개발업자와 결코 다른 것이 없으며 창조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상황을 방치하느니만 못하는 적극적 파괴자로서 남게 될 것이다.

건축가 피터 블레이크의 말처럼 의사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해 버리는 것으로 모든일을 무마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가의 실수는 그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도시와 환경에서 시각적, 공간적 공해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작업에 의한 이와 같은 창조성과 영속성의 가치야말로 건축가를 다른 모든 직업과 구별해 주는 고유한 긍지임과 동시에 준엄한 책무이다.

우리가 흔히 건축가의 사회적 속성을 얘기하는 것 역시 하나의 건물을 디자인하거나 세우는 일은 건축가나 건축주의 개인적 소관사항일지라도 일단 그것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그 건물이 들어선 사회와 환경의 일부로 남게되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우리의 건축환경은 1년이 새롭게 변화고 있다. 그 변화의 결과는 훗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 공과는 온전히 우리 건축가의 몫이다. 금융실명제를 본딴 건축물 실명건축의 창조성과 사회성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실공사 방지책의 일환으로서 거론되는 우리의 비극적인 건축현실은 건축의 창조성과 환경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오히려 회극적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와같은 기발한 발상이 농담 아닌 진담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리만치 건축계가 이미 반쯤은 먹칠이 되어버린 마당에 이름석자를 온전히 남기려는 것조차 쓸데없는 바람인지 모른다

그러나 어찌하랴... 우리가 신과는 같지 않더라도 동물보다 낫다는 것은, 그리고 건축가가 신과 인간의 중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발업자와는 다르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이름석자와 그 알량한 창조성 때문이라는 자기합리화 이외에는 아직 마땅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